안전협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신년 출발

안전협회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함에 앞서 지난 1월 2일에 시무식을 갖고, 개인과 협회 발전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홍지 회장은 우리 안전협회 가족이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들을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인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협회 모두는 더욱더 성실히 업무에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충남북부지회 개소식 가져

안전협회는 대전충남지회 천안출장소를 충남북부지회로 승격하고 1월 9일 이에 대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충남북부지회(정규중 사무국장) 개소식에는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 및 임직원을 비롯해 이보간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김홍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장, 최병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지부 사무국장, 안전공단 천안지도원 각 팀장 등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식후 행사로 아산 영인산 정상에서 신신제 및 협회 발전을 기원하는 기원제도 함께 가졌다.

한전산업개발(주) 영동사업소 무재해 10배 달성

한전산업개발(주) 영동사업소(김명갑 소장)는 2003년 9월 무재해 10배를 달성하여 지난 1월 12일 안전협회로부터 무재해 10배 달성탑을 수여받았다.

한전산업개발(주) 영동사업소는 직원들의 하나된 단결력으로 영동화력발전소 제1·2호기 상하탄설비운전, 회처리설비운전, 배연탈황설비운전 등의 업무를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오염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는 영동지방에서 4번째로 달성하는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무재해 15배, 20배를 향해 매진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안전협회 2004년 교육교재 편찬

안전협회는 2004년도 교육사업을 위한 각종 교육교재를 발간하였다.

발간 교재로는 관리감독자교육과정, 산업재해예방실천과정, 사업장안전보건실무과정 등의 교육교재로 시대흐름에 맞춰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관리감독자교육과정은 공통, 일반, 건설, 공동주택 등으로 다양화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추가하였다.

이 밖에 관리자의 리더쉽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무사고조직과 안전문화에 대해서도 보완하였다.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제출대상	○제출대상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공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중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 개조 · 해체공사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종전과 동일)
-터널건설 등의 공사	-(종전과 동일)
-제방높이 50미터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 ·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지방상수도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가 확대 ·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착공되는 공사에 적용되므로 제출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공사는 해당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착공전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지역본부/지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Safety

2004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계획 발표

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를 지난해보다 10% 감소시켜 재해율 0.78%, 재해자수 8만 5000여명, 사망자수 2600여명 수준으로 잡은 2004년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이 최근 확정한 업무추진 세부전략에 의하면 재해다발 취약분야의 산재감소, 대기업 등 안전관리 능력(의지) 보유사업장에 대한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지원,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재해다발,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형 · 사법조치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확대에 정책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사고 위험사업장의 중점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체계가 구축되며, 중대재해에 취약한 위험작업의 산재예방관리도 높은 강도로 진행된다.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중소규모 현장의 재해가 집중관리되는 한편 대형건설현장은 자율안전관리를 더욱 내실화할 생각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산재취약층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일선 사업장에 근원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량 위험기계 ·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위험기계 · 기구에 대한 자체검사가 철저히 이행할 복안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유해인자 관리체제 구축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